

그 산의 이름은 삼유방산●이었는데, 세 개의 봉우리가 유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네. 그리하여 두 아이는 흑강 언덕을 북쪽 사면으로 해서 내려왔고, 거기서 다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어느 커다란 강의 가장자리에 닿았지. 그 강이 두 아이의 앞길을 가로 막았네. 지금도 마찬가지네만, 이 섬 대부분은 온통 숲으로 뒤덮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, 섬 안에는 아직까지도 이름이 없는 강과 산이 여럿 있다네. 두 아이가 있던 강변에서는 강물이 강바닥의 돌 위를 흐르며 거품을 부글부글 일으키고 있었지. 그 물소리에 겁을 먹은 비르지니는 걸어서 강을 건너야 한다니 물속으로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네. 그러자 풀은 비르지니를 등에 업었고, 강물이 요동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생을 짊어진 채 미끄러운 바위를 디디며 강을 건넜어.

“겁먹지 마.”

풀이 비르지니에게 말했다네.

“난 너랑 같이 있으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걸 느껴. 아까 그 흑강의 주민이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너의 청을 거절했다면, 나는 그 사람이랑 싸웠을 거야.”

---

● 구약성경 탈출기 2장 15-22절의 내용으로,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,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일곱 딸들이 물을 길러 오자 냇빛 목동들이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려 했고, 모세가 이 과정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지켜주어 이후 르우엘이 모세를 자기 딸 치포라와 결혼시킨 일화를 담고 있다. (생피에르는 “르우엘”과 “치포라”를 각각 “Raguel”, “S???phora”로 쓰고 있으나, 2005년 한국천주교회에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기준으로 고쳐 썼음을 밝힌다.)